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중국 스타 작가 류 사오동이 지난 13일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상무고 정주연 학생과 도청별관을 배경으로 작품을 그리고 있다.

# 10代에게 '5·18'은 어떤 의미일까

## 中 류 사오동 '역사 현장' 화폭에 ... 광주 고교생 5명 모델 참여

### 20개 퍼즐 그림 '시간' 광주비엔날레 전시

지난 13일 상무고등학교 3학년 정주연 학생이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화단에 중국 스타작가 류 사오동(사진)의 모델로 화단에 앉은 주연양은 34년 전 80년 5월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류 사오동은 옛 도청별관을 배경으로 그 잘나를 물감과 붓으로 빠르게 그려나갔다. 34년 전 치열했던 옛 전남도청의 모습이 중국 작가의 붓끝을 통해 화폭 안에서 되살아났다.

1980년 5·18광주민중화운동은 경험하지 않았던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나고 자란 도시에서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2014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에 참여하는 중국 스타작가 류 사오동이 광주에 머물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인 옛 전남도청과 10대 청소년들을 모델로 34년 전 그날을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를 찾은 류 사오동은 도청 분수대 옆에 천막으로 작업실을 만들고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현장 스케치를 진행했다. 앞서 전남대, 5·18 국립묘지 등 5·18의 아픔이 서려 있는 장소를 둘러본 그는 "최후의 격전지인 옛 전남도청이 가장 의미 있는 장소인 것 같다"며 이곳을 작품 배경으로 선택했다.

작가 앞에 선 학생들은 미대 지방생인 조우영(금호고 3년), 전진성(봉암고 3년), 박창희(여·광주여고 3년), 김준수(광주고 3년), 정주연 학생이다. 류 사오동은 광주 방문에 앞서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편지 등 리서치를 거쳐 모델을 직접 선정했다. 학생들은 편지에 언론과 부모님, 학교 등에서 배운 5·18과 그에 대한 생각을 적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바닥에 누워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당시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조우영 학생은 "교과서로 배웠던 광주민주화운동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너무 의미 있다"며 "민주화를 위한 윗 세대들의 희생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작업 결과물은 '시간'이라는 타이틀의 회화작품(가로 300 × 세로 240cm)으로 완성돼 광주비엔날레 기간 선보인다. 이 작품은 20개의 소품(60 × 60cm)을 퍼즐(가로 5개, 세로 4개)처럼 배열해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하는 형식이다. 전체적으로는 80년 5월 옛 전남도청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개인이 모여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소품마다 다른 색감을 보여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 스케치 등을 마친 류 사오동은



현재 전일빌딩에 작업실을 마련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류 사오동은 "망월동 국립묘지 등을 둘러보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많은 리서치를 했다"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한 달 간 머물며 그 현장을 담아내는 작업은 '시간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사오동은 중앙미술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미술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인구 이동, 환경오염, 경제적 격변 등 글로벌 이슈와 현대인의 삶을 거대한 페인팅 작업으로 담아왔으며, 제4회 베니스 비엔날레, 제15회 시드니 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한편 류 사오동은 작품을 완성하고 오는 18일 광주를 떠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선사시대 고흥부터 우주메카 고흥까지

## '남도문화전 V-고흥' 특별전 국립광주박물관 9월 28일까지

고흥은 우리나라 고인돌 최대 밀집 지역 중 하나로 청동기문화를 꽃피웠다. 삼국시대의 고분문화는 고대 해상세력의 실체를 보여준다. 또 분청사기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도자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고흥군과 공동으로 9월28일까지 '남도문화전 V-고흥'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고흥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됐다. 전시도입부에서는 '자연과 사람'을 주제로 고흥의 아름다운 풍광과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연표와 지도 등을 통해 고흥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2부는 '선사와 고대'로 1만8000년 전 고흥 지역 인류 역사를 소개하는 고흥 풍



안동고분 출토 금동관모



무술(戊戌)명 동종

양면 한동리 한동마을 구석기유적을 선보이고, 2000여 기의 고인돌에서 출토된 고흥의 청동기 유물들을 전시한다.

3부 '중세와 근세'에서는 불교와 도자기, 유교를 통해 고흥의 중·근세문화를 소개한다. 봉래사 관음보살상에서 나온 복장유물과 운대리 분청사기가마터 출토유물 등을 보여준다. 특히 충무공 이순

신이 전필로 작성한 '이충무공전필첩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전시된다.

4부(근대와 현대)에서는 국립소록도 병원 소장 유물들이 섬을 벗어나 처음 일반에 공개되고, 한국 우주항공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고흥의 모습도 보여준다. 문의 062-570-70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1인 3역' 배우의 힘!

## 상무지구 기분좋은 극장 '바람난 삼대' 27일까지

'배우의 힘'

연극의 매력은 여러가지다. 재미만 스토리일 수도 있고, 기발한 연출력일 수도 있고, 출연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일 수도 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 기분좋은 극장에서 공연중인 '바람난 삼대'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압권인 작품이다. 거기에 시종일관 유쾌함이 이어져 공연 보는 내내 관객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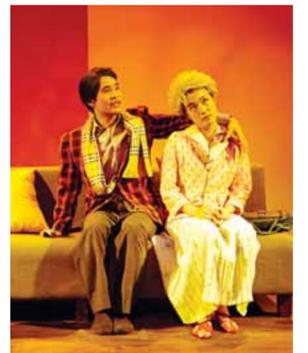
작품의 무대는 사별한 할아버지, 이혼한 아버지, 미혼한 아들이 함께 사는 아파트. 어느 날 세 사람 모두 일이 있어 집

을 비우게 되자 각자 애인을 집에 데려와 즐거운 한 때를 보내려 한다. 하지만 갑작스레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일은 복잡하게 얽힌다.

첫 신은 어느날 아침 풍경. 소파 하나 놓여 있는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이는 아버지다. 한때 순식간에 아들로, 할아버지로 변하며 발군의 연기를 펼친다. 초반, 객석에서는 절로 탄성이 나온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삼대가 출연해야 하는데 배우는 딱 1명이다.

삼대의 애인역을 맡은 여배우 역시 3명 역할을 홀로 소화한다. 삼대의 연애작전은 배우들의 연기와 관객들의 참여가 어우러지면서 유쾌하게 마무리된다.

2012년 연주소극장에서 열린 제12회 2인극 페스티벌에서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학로에서도 상영중이다.

27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 공연된다. 월요일은 공연이 없다. 티켓 3만원.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

# 제50회 전남도미술대전 수상작 선정 서양화 대상 정혜민·한국화 장재일

'제50회 전남도미술대전'에 '도심 그리고 행복'을 출품한 장재일(무안 무안읍씨)이 한국화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전남도도와 전남도에 출품한 13일 서예, 서각, 서문(문인화), 사진 등 10개 부문에서 치러진 이번 미술대전에서 6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9점의 작품을 우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모두 2190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1139점(특선 327점, 입

선 797점 등)이 입상작품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와 작품은 ▲서양화 정혜민(광주 남구 봉선동) '어떤의미?' ▲서각 양찬호(곡성 곡성읍) '미인가필' ▲서문 장석운(경남 창원시) '양희신' ▲사진 박귀환(광주 서구 치평동) '대화' ▲사진 유광종(목포 상동) '질주' 등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원이 시상된다. 시상식은 8월13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8월13~



장재일 작 '도심 그리고 행복'

17일, 8월23~27일 같은 장소와 8월29일~9월2일 여수전남문화회관에서 전시회가 열린다. 문의 062-351-7508.

/김경민기자 kki@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